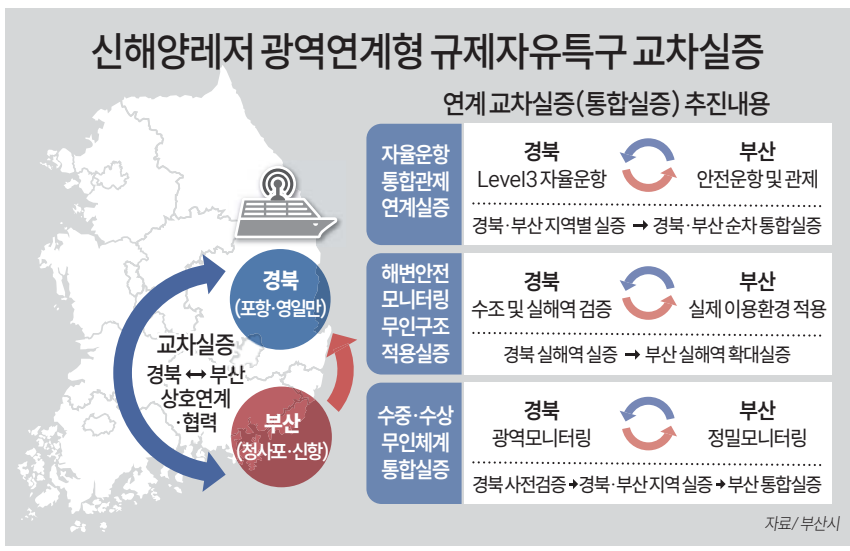
부산·경북, '신해양레저 특구' 확보… 자율운항 선박 띄운다

청사포·포항 일원 등 특구 운영
미래 해양레저 관련 기술 실증
전재수 시장 "새로운 시장 열 것"



자료/부산시

부산시와 경상북도가 미래 해양레저 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확보했다. 자율운항 선박과 무인구조 기술 등의 실증이 가능해지면서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과 경북 포항 일원 등 682.23㎢를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했다. 특구 운영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특구에서는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및 무인 수상구조로봇과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을 실제 해역에서 실증한다. 일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하고 면허보유자의 직접조종 의무를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돼 자율항법과 충돌회피 및 자동 감속·정지 기능을 검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에는 4건의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무인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과 수중드론의 승무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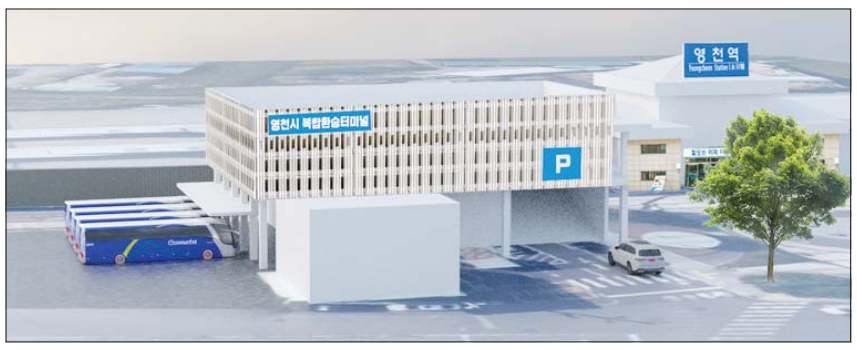
부산은 조선·해양·해양ICT 산업 기반과 항만·마리나·해수욕장 등 현장 환경을 활용해 AI 위험판단과 해상 안전관제 및 무인 해양장비를 실증한다.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 외해·자연해역을 기반으로 자율운항과 수중로봇 핵심기술 개발 및 장비 제작과 성능·안전성 검증을 맡는다.

양 지역은 서로 다른 해역에서 교차실증을 진행해 기술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결과를 자율운항·무인구조·스마트 해양안전 분야의 표준모델과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실증 기술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부산 해양관광 시장 소비 규모는 6조3천796억원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며 약 3만개의 해양산업 사업체와 16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집적돼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부산의 해양산업·항만 인프라와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해 미래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자율운항과 AI, 로봇 기술을 부산의 조선·해양산업과 결합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영천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조감도.

'영천역 환승센터' 국가 기본계획 반영

영천시 '광역교통 관문' 활용 계획
김병삼 시장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영천시는 영천역 환승센터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환승체계 구축 계획이다.

영천역 환승센터는 완산동 영천역 인근에 총사업비 약 19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철도·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철도와 대중교통의 환승 편의와 이용객 이동 동선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천시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등 철도교통 여건 개선과 대구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맞춰 영천역을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결되는 '영천의 광역교통 관문'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민 이동 편의와 방문객 접근성을 높여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도 연계할 계획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영천역 환승센터의 국가 기본계획 반영은 영천이 광역교통의 중심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영천역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kih9@

전남광주교육청 "현장 의견 들려주세요"

누리집 게시판 개설… 상시 의견 수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에 교육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누리집에 게시판을 개설하고, 상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게시판은 현행 특별법의 교육 분야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전남광주교육 발전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안 분야는 ▲ 교육자치 확대 ▲ 불합리한 규제 개선 ▲ 학교 및 교육행정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 ▲ '교육지산지소' 실현 방안 ▲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게시판은 상시 운영하되, 현재 진행 중인 특별법 개정 일정에 맞춰 2026년 9월 11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이번 개정안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접수된 의견은 향후 개정 과제로 관리·검토할 예정이다.

/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부산TP, '초광역프로젝트' 기술수요조사

울산·경남 등 동남권 소재 中企 대상

부산테크노파크(이하 부산TP)는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8년 초광역프로젝트(R&D)' 기술수요조사를 오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 중인 이 프로젝트의 전략 품목과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로, 지역 간 혁신 자원을 공유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력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초권으로 묶어 전략 산업을 키우려는 정책 흐름과 맞물려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도로 산업별 전략 품목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 필요성·범위·방향을 담은 품목 개요서를 마련한 뒤, 중앙 정부 컨설팅을 거쳐 최종 품목·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 분야는 차세대해양모빌리티와 피지컬AI 기반 모빌리티 부품·제조 등 2개다. 차세대해양모빌리티 분야는 극한 환경용 선박 부품, 친환경 선박 기자재, 지능형 자율 제조를 육성 품목으로 삼고, 피지컬AI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모듈과 용접·성형·가공 등 자동차 제조 공정의 지능화·자율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울산·경남 중소기업의 동시 참여를 기반으로 권역 간 기술·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TP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조사 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형필 부산TP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동남권 중소기업 간 협력과 혁신 자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차세대해양모빌리티와 피지컬AI 기반 모빌리티 부품·제조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동남권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창원시, 관내 축산물 영업장 특별점검

추석 앞두고 관리·감독 강화

창원시는 관내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해 추석 성수기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축산물 가공업과 포장처리업체 등 총 163개소로, 시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전방위적 관리·감독에 나선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축산물 가공·포장 시설의 위생 관리 상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허위 기재 여부 등이다.

창원시는 추석을 앞두고 관내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창원시

강종순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지역 이모저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일 '2026 명량대첩축제'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도·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2026 명량대첩축제'를 개최한다.

명량대첩축제는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조선 수군과 전라도 백성이 힘을 모아 울돌목에서 거둔 명량대첩의 승리를 기념하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대표 역사문화축제다.

올해 축제는 개막식과 주제공연, 대규모 출정 퍼레이드, 해상 퍼레이드, 축하공연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남광주=양수녕 기자

김해시
64억 규모 전기차 보조금 지원

김해시가 '2026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사업 규모는 64억원으로 전기 승용차 500대·전기 화물차 25대·전기 승합차 10대 등 총 535대가 대상이며 접수는 전기 화물차 3일, 전기 승용차 10일부터 시작된다.

최대 지원액은 ▲전기 승용차 754만원 ▲전기 화물차 1365만원 ▲전기 승합차 9100만원 ▲어린이 통학 차량 1억4950만원이며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구례군
'아이언맨 구례' 대회준비 만전

국내외 철인3종 선수들이 참가하는 '2026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가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구례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의 본경기는 10월 4일에 진행되며, 참가 선수들은 수영 3.8㎞를 시작으로 사이클 180㎞와 마라톤 42.2㎞를 연이어 완주하는 총 226㎞의 풀코스에 도전한다.

구례군과 대한철인3종협회는 아이언맨TF팀을 구성해 ▲교통 ▲안전 ▲보급 ▲자원봉사 등 분야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교통통제 구간 및 시간 등은 구례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구례(전남광주)=양수녕 기자

구미시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사업 접수

구미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며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 선정된 기존 대상자도 신청해야 한다.

최초 선정 후 기본 2년간 지원되며 6개월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jingon@